『太素·經脈病解』에 대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李容範*

Study on The explanation of channel disease in 『Tai Su(太素)』.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Lee, Yong-Bum

The 『Tai Su(太素)』 which was published by Yang Shang Shan(楊上善) during the Tang(唐) dynasty does not follow complicating hand down procedures allowing it to be preserved in a relatively satisfactory state, and the book is evaluated as a major article in the study of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 in the modern age. The book of 『Tai Su·explanation of channel diseases(太素·經脈病解)』 offer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disease symptoms found in the book of 『Miraculous Pivot· channels(靈樞·經脈)』, and Yang Shang Shan(楊上善) provided relatively complete explan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ane and wax of shadow and sunshine powers(陰陽消長). The present writing was projected to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oks of 『Tai Su·explanation of channel diseases(太素·經脈病解)』 and 『Miraculous Pivot· channels(靈樞·經脈)』 and substantiall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of the 『Tai Su(太素)』 by adopting the perspectives of Yang Shang Shan(楊上善) in explaining the disease symptoms as he attempted in the book of 『Miraculous Pivot· channels(靈樞·經脈)』. Total 50 disease symptoms were explained in the book of 『Tai Su·explanation of channel diseases(太素·經脈病解)』, and 33 of them are common to the symptoms described in the book of 『Miraculous Pivot· channels(靈樞·經脈)』 by taking up about 66% of the book. The monthly attachment(月別配屬) of three shadow and three sunshine power(三陰三陽), which is described in the book of 『Tai Su· explanation of channel diseases(太素·經脈病解)』 provides an important clue in understanding the exterior and interior(表裏) relationship, and the crucial perspective lies on the mutual intensity change of shadow and sunshine powers. Therefore, the monthly attachment of three shadow and three sunshine power provided by the present article help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hree shadow and three sunshine power along with the time attachment(時間配屬) described in the other chapter of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

* 교신저자: 李容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33-730-0668, A95005@Gmail.com

In the method of explaining pathogenesis, the explanation was made by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of mutual intensity change of shadow and sunshine powers, and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hip along with the channel path(經脈流注) have been used simultaneously. In the comment of the main article, Yang Shang Shan(楊上善) stated the channels of hands and feet(手足經脈) as the scope of the three shadow and three sunshine power, but the symptoms and signs are mainly focused on the channels of feet as in the book of 『Miraculous Pivot·channels(靈樞·經脈)』.

Key Words: intensity of shadow and sunshine powers, three shadow and three sunshine power, time attachment, exterior and interior, channel path.

1. 서 론

『太素·經脈病解』의 내용은 『素問·脈解』와 거의 같다. 다만 다른 글자가 약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太素·經脈病解』에는 少陰이 7월로 배속되어 있고, 『素問·脈解』에는 10월로 되어 있는 것이다. 少陰을 7월로 보느냐 아니면 10월로 보느냐에 대하여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三陰三陽의 月別配屬을 12辟卦와 연결시켜 볼 때 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 그리고 『素問·脈解』의 원문에 나오는 經脈病의 설명은 주로 陰陽消長의 관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王冰의 주석이 주로 經脈流注로 설명된 것과는 달리 『太素·經脈病解』의 楊上善의 주석은 陰陽消長의 관점에 충실하다. 그러므로 『素問·脈解』의 원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太素·經脈病解』의 原文과 楊上善의 주석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素問·脈解』와 『靈樞·經脈』의 상관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해 내려온 과정이 복잡한 『素問』보다 전해 내려온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蕭延平이 이미 『素問』과의 校勘작업을 해 놓은 『太素』를 저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楊上善의 주석도 비교적 原文의 陰陽消長 관점에 충실하여 원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太素·經脈病解』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病證과 『靈樞·經脈』의 是動所生病과의 상관성이고, 둘째는 三陰三陽의 의미에 근거한 病證의 病機에 대한 설명이다. 三陰三陽의 의미에 대하여는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내용도 살펴보는 것이 三陰三陽의 전체적인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의 拙稿 「三陰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2]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많이 참고하였다.

Ⅱ. 연구방법

『太素·經脈病解』의 原文과 楊上善의 注, 그리고 蕭延平의 校를 모두 해석하였다. 해석은 축자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 전달상 필요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필요한 부분에는 [校注] [按] 등을 달아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太素』의 저본은 대성문화사에서 1991년 발간한 『黃帝內經太素』[3]을 사용하였다.

고찰에서는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의미뿐만 아니라 『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다루었으며, 陰陽消長의 관점에 입각하여 각 經

1)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p. 82-85.

2) 이용범. 三陰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pp. 46-52.

3) 楊上善 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91. pp. 113-118.

脈 病證의 病機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經脈의 병증을 『靈樞·經脈』의 是動所生病에 나오는 증상과 비교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또한 주요 증상이 어떤 經脈들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Ⅲ. 原文 및 楊上善注, 蕭延平校의 번역

[蕭延平校] 平按 : 此篇見『素問』卷十三第四十九『脈解』篇.

[解釋] 이 편은 『素問』 권 13 제 49 「脈解」편에 나온다.

[蕭延平注] 又按 : 『素問』新校正云 : 詳此篇所解, 多『甲乙經』是動所生之病, 雖復少有異處, 大概則不殊矣.

[解釋] 『素問』 新校正에서는 "살피건대, 이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甲乙經』의 是動所生病으로, 비록 약간의 다른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按] 현존하는 『甲乙經』의 是動所生病 내용은 『靈樞·經脈』과 거의 같다. 그러므로 新校正에서 말한 『甲乙經』은 현존하는 『甲乙經』과 다른 본일 것으로 추측된다.

[原文] 太陽所謂腫, 腰脽痛者, 正月大陽寅. 寅, 大陽也.

[解釋] 太陽病에서 이른바 붓고, 허리와 꽁무니가 아프다는 것은, 정월이 三陰三陽 중에서는 太陽이고, 12地支로는 寅에 해당하여, 寅이 太陽인데,

[楊上善注] 脽, 尻也, 音誰也. 十一月, 一陽生, 十二月, 二陽生, 正月, 三陽生. 三陽生寅之時, 其陽已大, 故曰大陽也.

[解釋] 脽는 꽁무니의 뜻이다. 음은 수로 읽는다. 11월에는 一陽이 생기고, 12월에는 二陽이 생기며, 다음해 정월에는 三陽이 생긴다. 三陽, 즉 寅이 생기는 때에, 그 陽이 이미 크기 때문에 太陽이라고 하는 것이다.

[按] 원문의 '脽'는 『足臂十一脈灸經』의 足太陽脈에 病證에 脽痛이라는 표현이 나와[4] 서로 관련이 있다. '脽'의 의미에 대하여 楊上善은 꽁무니의 뜻으로 보았으나, 帛書圖版에 근거하여 '臀'자로 보는 것이 옳고 '尻'자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5] 12辟卦에서는 太陽이 地天泰卦로 아래에 3개의 陽爻가 있고, 그 위에 3개에 陰爻가 있다.[6]

[原文] 正月陽氣出在上,

[解釋] 정월에는 陽氣가 나와 위에 있으나

[楊上善注] 一陽在地下, 深牙初發也; 二陽在地中, 淺牙出也; 三陽在地上出, 故曰正月陽氣出在上也.

[解釋] 一陽은 땅 속에 있어서 깊은 곳에서 싹이 처음 피는 것이고, 二陽은 땅 가운데에 있어서 얕은 곳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며, 三陽은 땅 위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월에는 陽氣가 나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注二牙字, 袁刻均誤作少.

[解釋] 平按: 注의 두 '牙'자는 袁刻에는 모두 '少'자로 잘못 되어 있다.

[原文] 而陰氣盛, 陽未得自次也, 故腫, 腰脽痛.

[해석] 陰氣가 盛하여 陽이 아직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붓고, 허리와 꽁무니가 아프다는 것이다.

[楊上善注] 三陰猶在地上未沒, 故陰氣盛也. 以陰氣盛隔, 陽氣未得次第專用, 故發腫于膚肉, 生痛于腰也.

[解釋] 三陰이 아직 땅 위에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陰氣가 盛한 것이다. 陰氣가 盛하면서 막히고, 陽氣는 아직 자기 자리를 잡고 일을 하지 못하므로, 피부와 고기에 腫이 생기는 것이며,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原文] 偏虛為跛者, 正月陽凍解地氣而出也. 所謂

4) 周一謨, 蕭佐桃 主編.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
5) 周一謨, 蕭佐桃 主編.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3.
6)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p. 82-83.

偏虛者, 冬寒頗有不足者, 故偏虛, 故跛.

[解釋] 한 쪽이 虛하여 다리를 저는 것은 정월에 陽이 언 것을 녹여 地氣가 나와야 하는데, 이른바 한 쪽이 虛하다는 것은 겨울에 날씨가 추운데, 陽氣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쪽이 虛한 것이고 다리를 저는 것이다.

[楊上善注] 正月已有三陽, 故凍解, 陽氣出于地也. 先有三陰, 故猶有冬寒, 陽氣不足也. 人身亦爾, 半陽不足, 故偏虛. 跛, 謂左脚偏跛也.

[解釋] 정월에 이미 三陽이 있으므로 언 것이 녹고, 陽氣가 땅으로 나오는 것이다. 먼저 11월의 三陰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겨울의 寒氣가 남아 있는데, 陽氣는 부족한 것이다. 사람의 몸도 또한 이와 같다. 陽의 세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므로, 한 쪽이 허한 것이다. 破는 왼쪽 다리 한 쪽이 저는 것을 말한다.

[蕭延平校] 平按：『素問』偏虛為跛者上有病字, 凍上有氣字, 故跛作為跛也. 頗有下袁刻脫不足者三字. 注故凍解三字, 袁刻在出于地也下.

[解釋] 『素問』에서는 '偏虛為跛者' 위에 病자가 있고, '凍'자 위에 氣자가 있다. '故跛'는 '為跛也'로 되어 있다. '頗有' 아래에 袁刻本에는 '不足者' 3글자가 빠져 있다. 注에서 '故凍解' 3글자는 袁刻本에는 '出于地也' 아래에 있다.

[原文] 所謂強上者, 陽氣大上而爭, 故強上.

[解釋] 이른바 뒷목이 뻣뻣하다는 것(强上)은 陽氣가 커져서 위로 올라가 陰氣와 다투므로,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三陽向盛, 與三陰戰, 得大得上, 而陰猶爭也.

[解釋] 三陽이 점점 성해져서 三陰과 싸우는 것으로, 그 세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갔으나, 陰이 아직 다툴만한 상태이다.

[蕭延平校] 平按：『素問』所謂強上四字下, 有引背二字. 注得上, 得字袁刻作德.

[解釋] 『素問』에서는 '所謂强上' 4글자 아래에 '引背' 2글자가 더 있다. 注에서 '得上'의 '得'자가 袁刻本에는 '德'자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耳鳴者, 陽氣萬物上而躍, 故耳鳴.

[解釋]이른바 耳鳴이라는 것은 陽氣가 만물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 뛰게 하기 때문에 귀가 우는 것이다.

[楊上善注] 正月陽氣令萬物勇躍鳴上, 故生病氣上沖耳鳴也.

[解釋] 정월에 陽氣는 만물로 하여금 과감히 뛰게 하여 위에서 소리를 내게 한다. 그러므로 氣가 위로 치받아 귀가 우는 병이 생긴다.

[蕭延平校] 平按：上而躍『素問』作盛上而躍.

[解釋] '上而躍'은 『素問』에 '盛上而躍'으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甚則狂癲疾者, 陽盡在上而陰氣從下, 下虛上實, 故癲疾.

[解釋] 이른바 심하면 狂 癲疾의 병이 생긴다는 것은 陽이 다 위에 있고, 陰氣는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는 虛하고 위는 實하기 때문에 癲疾의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楊上善注] 二陽爻與三陰爭, 而三陽俱勝, 盡在于頭, 為上實: 三陰從下, 即為下虛. 于是發病, 脫衣登上, 馳走妄言, 即謂之狂: 僵仆而倒, 遂謂之顛也.

[解釋] 二陽爻가 三陰과 싸우는데 三陽이 모두 이겨 그 세력이 다 머리에 있으므로, 上實이 되며, 三陰이 아래로 내려가므로 下虛가 된다. 이 때 발병하여 옷을 벗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달리고 망언을 하니, 즉 狂이라 한 것이며, 쓰러져 넘어지니, 顛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素問』故癲疾作故狂巔疾也.

[解釋] 『素問』에서는 '故癲疾'이 '故狂巔疾'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浮為聾者, 皆在氣也.

[解釋] 이른바 맥이 떠서 귀가 먹는다는 것은 모두 太陽의 氣에 원인이 있다.

[楊上善注] 診人迎之脈, 得三陽浮者, 皆是太陽之氣為聾也.

[解釋] 인영의 맥을 진단하여 三陽이 떠 있는 맥이 잡히면, 모두 太陽의 氣가 원인이 되어 귀가 먹게 된다.

[原文] 所謂人中為喑者, 陽氣已衰, 故為喑.

[解釋] 이른바 사람이 속에서 상하여 말을 못한다는 것은 陽氣가 이미 쇠퇴하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太陽之氣中傷人者, 即陽大盛, 盛已頓衰, 故為喑也.喑, 不能言也.

[解釋] 太陽의 氣가 속에서 사람을 손상한다는 것은 陽이 크게 성하였다가, 성한 기세가 멈춰지고 갑자기 쇠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못하는 병이 생긴다.

[蕭延平校] 平按 : 人中『素問』作入中.

[解釋] '人中'은 『素問』에는 '入中'으로 되어 있다.

[原文] 內奪而厥, 則為喑痱, 此腎虛也,

[解釋] 내부에서 氣가 奪하여 厥證이 되면 말을 못하는 喑痱가 되는데, 이는 腎이 虛한 것이다.

[楊上善注] 陽氣外衰, 故但為喑也. 左腎氣內虛奪而厥者, 則為喑痱, 音肥, 風病不能言也. 謂四肢不用, 喑不能言, 心無所知, 甚者死, 輕者, 生可療也.

[解釋] 陽氣가 밖에서 쇠퇴하므로 다만 말 못하는 喑만 나타난 것이다. 左腎의 氣가 내부에서 虛奪하여 厥證이 생기면 말못하는 喑痱가 된다. 痱는 음이 비로, 風病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다. 四肢를 못쓰고 喑으로 말을 못하는데, 마음이 알지 못함을 말한다. 심한 자는 죽고, 가벼운 자는 사니, 치료할 수 있다.

[蕭延平校] 平按 : 痱『素問』作俳. 注左腎左字袁刻作有.

[解釋] 痱는 『素問』에는 '俳'로 되어 있다. 注에서 '左腎'의 '左'자는 袁刻本에는 '有'로 되어 있다.

[原文] 少陰不至, 少陰不至者厥也.

[解釋] 少陰의 氣가 이르지 않는 것이니, 少陰이 이르지 않으면 厥證이 생긴다.

[楊上善注] 少陰, 腎脈也. 足少陰脈不通, 則血氣不資于腎, 故厥為喑痱也.

[解釋] 少陰은 腎脈이다. 足少陰脈이 통하지 않으면 血氣가 腎에서 영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厥證이 생기고, 말 못하는 喑痱가 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少陰不至四字『素問』不重.

[解釋] '少陰不至' 4글자는 『素問』에 중복되어 있지 않다.

[原文] 少陽所謂心脅痛者, 言少陽戊也, 戊者, 心之所表也,

[解釋] 少陽病에서 이른바 心脇痛이라는 것은 少陽은 12地支에서 戊에 해당하고, 戊(少陽)은 心의 바깥이 되는데,

[楊上善注] 手少陽脈絡心包, 足少陽脈循脅裏, 故少陽病心脅痛也. 戊為九月, 九月陽少, 故曰少陽也. 戊少陽脈, 散絡心包, 故為心之所表.

[解釋] 手少陽脈은 心包에 絡하며, 足少陽은 옆구리 속을 순행한다. 그러므로 少陽病에 心脅이 아픈 것이다. 戊은 9월인데, 9월은 陽이 적다. 그러므로 少陽이라고 한 것이다. 戊 少陽脈은 心包에 흩어져 絡한다. 그러므로 心의 바깥이 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二戊字『素問』均作盛.

[解釋] 두 개의 '戊'자는 『素問』에 모두 '盛'자로 되어 있다.

[按] 楊上善은 少陽이 心의 表가 되는 것을 手少陽脈과 足少陽脈의 流注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楊上善이 少陽에 手足經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7] 關闔樞의 관계로 보면 心은 少陰이므로, 少陽과 함께 樞에 해당한다. 12辟卦에서는 少陽이 山地剝卦로 아래에 다섯 개의 陰爻가 있고, 그 위에 하나의 陽爻가 있다.[8]

[原文] 九月陽盡而陰氣盛, 故心脅痛.

[解釋] 9월에는 陽의 세력이 다하고 陰氣가 盛하므로 心脅이 아픈 것이다.

[楊上善注] 陰氣已盛, 陽氣將盡, 少陽為病, 故心脅痛也.

[解釋] 陰氣가 이미 盛하고 陽氣는 장차 그 세력이 다하려고 하는데, 少陽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心

7) 王冰은 『素問·脈解』에 주를 달면서 三陰三陽을 足經脈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校釋』에서도 足經脈으로 이해하고 있다.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654.

8)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 83.

脅이 아픈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陽盡『素問』作陽氣盡.

[解釋] '陽盡'은 『素問』에 '陽氣盡'이라고 되어 있다.

[原文] 所謂不可反側者, 陰氣藏物也, 物藏則不動, 故曰不可反側.

[解釋] 이른바 돌아누울 수 없다는 것은 陰氣가 만물을 저장하는데, 만물이 저장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누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楊上善注] 九月物藏, 靜而不動, 陰之盛也, 故病不能反側也.

[解釋] 9월에 만물이 저장되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陰이 盛한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누울 수 없는 병을 앓는 것이다.

[原文] 所謂甚則躍者, 九月萬物盡衰, 草木畢落而墮也, 則氣去陽而之陰,

[解釋] 이른바 심하면 용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9월에 만물이 다 쇠퇴해져 초목이 다 떨어지게 되면 氣가 陽에서 떠나 陰으로 가서,

[楊上善注] 躍, 勇動也. 甚謂九月陰氣外盛, 故萬物之氣極畢墮落, 則萬物之氣去陽之陰也.

[解釋] 躍은 용감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심하다는 것은 9월에 陰氣가 밖에서 盛하므로, 만물의 氣가 陽을 떠나 陰으로 가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注九月下袁刻脫陰氣二字.

[解釋] 注에서 '九月'아래에 袁刻本에서는 '陰氣' 두 글자가 없다.

[原文] 而陽之下長也, 故曰躍.

[解釋] 陽이 아래에서 자라게 되므로, 躍이라고 한 것이다.

[楊上善注] 陰氣盛于地上, 陽氣在于地下, 勇動萬物之根, 令其內長也.

[解釋] 陰氣는 땅 위에서 盛하고, 陽氣는 땅 아래에 있게 되어, 만물의 뿌리를 용감하게 움직이게 하여 그 내부에서 자라게 한다.

[蕭延平校] 平按 : 而陽上『素問』有氣盛二字, 袁刻有氣盛炙三字.

[解釋] '而陽' 위에 『素問』에는 '有盛' 두 글자가 더 있고, 袁刻本에는 '氣盛炙' 3글자가 더 있다.

[原文] 陽明所謂洒洒振寒者,

[解釋] 陽明病에서 이른바 오싹오싹 추위를 탄다는 것은

[楊上善注] 陽明, 三陽之長也. 午為五月, 陽之盛也. 在于廣明, 故曰陽明.

[解釋] 陽明은 三陽의 어른이다. 午는 5월로 陽이 盛하다. 廣明에 있으므로 陽明이라 한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洒洒『素問』作灑灑, 下同, 不再舉.

[解釋] 洒洒는 『素問』에 '灑灑'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原文] 陽明者, 午也, 五月, 盛陽之陰也,

[解釋] 陽明은 12地支에서는 午, 월별배속으로는 5월에 해당하여, 盛한 陽에 陰이 막 생겨난 것인데,

[楊上善注] 五月盛陽, 一陰爻生, 即是陽中之陰也.

[解釋] 5월은 盛한 陽의 세력에 하나의 陰爻가 생기는 때이니, 즉 陽 가운데의 陰이다.

[按] 12辟卦에서 陽明은 姤卦로 아래에 陰爻가 하나 있고, 그 위에 5개의 陽爻가 있다.[9]

[原文] 陽盛而陰氣加之, 故洒洒振寒.

[解釋] 陽이 盛한 상태에서 陰氣가 이에 보태진 것이므로 오싹오싹 추위를 타는 것이다.

[楊上善注] 一陰始生, 勁猛加陽, 故洒洒振寒也.

[解釋] 하나의 陰이 처음 생겨 굳세고 맹렬하게 陽에 가해지니, 그러므로 오싹오싹 추위를 타는 것이다.

[原文] 所謂脛腫而股不收者, 五月盛陽之陰也, 陽者衰于五月, 而陰氣一下, 與陽始爭, 故脛腫而股不收.

[解釋] 이른바 정강이가 붓고 고관절이 수렴되지 못하는 것은, 五月이 성한 陽에陰이 막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데, 陽이 5월에 쇠퇴하면서 陰氣가 한바탕 陽과 더불어 다투기 시작하므로 정강이가 붓고 고관

9)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 83.

절이 수렴되지 못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腰以上為陽, 腰以下為陰, 五月有一陰氣在下始生, 與陽交爭, 陽強實于上, 陰弱虛于下, 故脛腫, 股不收也.

[解釋] 허리 이상은 陽이고 허리 이하는 음이다. 5월에는 하나의 陰氣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 陽과 더불어 싸우는데, 陽이 위에서 강하고 실하고, 陰은 아래에서 약하고 허하다. 그러므로 정강이가 붓고, 고관절이 수렴을 못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陰氣一下『素問』作一陰氣上.

[解釋] '陰氣一下'는 『素問』에 '一陰氣上'으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上喘為水者, 曰陰氣下, 下復上, 上則邪客于臟腑間, 故為水.

[解釋] 이른바 위에서 숨이 가쁘고 水病이 생긴다는 것은, 陰氣가 내려갔다가 아래에서 다시 올라 오는데, 올라오면 邪氣가 臟腑 사이에 침입하게 되므로 水病이 생긴다는 것이다.

[楊上善注] 五月陽明, 一陰為病, 謂上喘咳水病者也. 一陰上下胸腹之中, 不依常度, 遂邪隨陰氣, 客于腑臟之間, 故為水病也.

[解釋] 五月은 陽明인데, 一陰이 水病이 된다는 것은 위로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며 水病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一陰이 가슴과 배의 속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정상적인 궤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마침내 邪氣가 陰氣를 따라서 臟腑의 사이에 침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水病이 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陰氣下下復上『素問』作陰氣下而復上. 注常度, 度字袁刻作處.

[解釋] '陰氣下下復上'은 『素問』에는 '陰氣下而復上'으로 되어 있다. 注의 '常度'의 '度'자는 袁刻本에는 '處'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胸痛少氣者, 水在臟腑也, 水者陰氣也, 陰氣在中故少氣.

[解釋] 이른바 胸痛 少氣(陽氣少)는 水가 臟腑에 있는 것이다. 水는 陰氣이다. 陰氣가 속에 있으므로, 少氣(陽氣少)한 것이다.

[楊上善注] 火為陽氣, 水為陰氣, 水在臟腑之間, 故陽氣少也.

[解釋] 火는 陽氣이고 水는 陰氣이다. 水가 臟腑 사이에 있기 때문에 陽氣가 적다고 한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素問』水在臟腑作水氣在臟腑, 故少氣作故胸痛少氣也.

[解釋] 『素問』에 '水在臟腑'는 '水氣在臟腑'로 되어 있고,'故少氣'는 '故胸痛少氣'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甚則厥, 惡人與火, 聞木音惕然而驚者, 陽與陰氣相薄, 水火相惡, 故惕然而驚.

[解釋] 이른바 甚하면 厥하고, 사람과 불을 싫어하고, 나무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것은 陽이 陰氣와 서로 합쳐져진 것인데, 水火가 서로 싫어하므로, 깜짝 놀라는 것이다.

[楊上善注] 陽明脈氣與陰氣俱盛, 水火相惡, 故惕然驚也. 木勝土, 故聞木音惕然驚也.

[解釋] 陽明脈의 氣와 陰氣가 모두 성한데, 水火가 서로 싫어하므로, 깜짝 놀라는 것이다. 木은 土를 싫어하므로 깜짝 놀라는 것이다.

[原文] 所謂志欲獨閉戶牖而處者, 陰陽相薄也, 陽盡而陰盛也, 故欲獨閉戶牖居.

[解釋] 이른바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거처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둔다는 것은 陰陽이 서로 부딪혔는데, 陽은 다하고 陰이 성해지므로,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거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陰陽相爭更勝, 陽盛已衰, 次陰氣盛, 故好閉戶牖獨居暗處也.

[解釋] 陰陽이 서로 다투어 번갈아 이기는데, 陽氣가 성하였다가 이미 쇠퇴하였다면, 다음은 陰氣가 盛할 순서이다. 그러므로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거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志欲, 志字『素問』無.

[解釋] '志欲'의 '志'자는 『素問』에 없다.

[原文] 所謂病重至則欲乘高而歌, 棄衣而走者, 陰陽復爭而外并于陽也, 故使之棄衣而走.

[解釋] 이른바 병이 중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 노

래 부르고 옷을 벗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陰陽이 반복하여 다투어 기운이 밖으로 陽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달리게 되는 것이다.

[楊上善注] 陰陽相爭, 陰少陽多, 陰并外陽, 故欲棄衣走也.

[解釋] 陰陽이 서로 다투는데, 陰이 적고 陽이 많다. 그러므로 옷을 벗고 달리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病重至, 重字『素問』無.

[解釋] '病重至'의 '重'자는 『素問』에 없다.

[原文] 所謂客孫脈則頭痛鼻鼽腹腫者, 陽明并于上, 上者則其孫脈太陰也, 故頭痛鼻鼽腹腫.

[解釋] 이른바 孫脈에 침입하면 頭痛 鼻鼽 腹痛이 생긴다는 것은 陽明의 氣가 위로 몰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 孫脈은 太陰과 연결되므로, 頭痛 鼻鼽 腹痛이 생기는 것이다.

[楊上善注] 太陰經脈, 至于舌下, 太陰孫絡, 絡于頭鼻, 故陽明并于太陰孫絡, 至鼻鼽腹腫也.

[解釋] 太陰經脈은 舌下에 이르고, 太陰의 孫絡은 頭와 鼻에 연락된다. 그러므로 陽明의 氣가 太陰孫絡으로 몰리면 鼻鼽 腹腫이 생기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則其孫脈, 『素問』脈作絡.

[解釋] '則其孫脈'에서 『素問』에는 '脈'이 '絡'으로 되어 있다.

[原文] 太陰所謂病脹者, 曰太陰者子也, 十一月萬物氣皆藏于中, 故曰病脹.

[解釋] 太陰病에서 이른바 脹을 앓는다는 것은 太陰은 地支에서 子와 연관되어 11월에 속하는데, 11월에는 만물이 다 속에 저장되므로, 脹을 앓는다고 한 것이다.

[楊上善注] 以十一月陰氣大, 故曰太陰. 陰氣內聚, 陽氣外通: 十一月陰氣內聚, 雖有一陽始生, 氣微未能外通, 故內病為脹也.

[解釋] 11월에는 陰氣가 크기 때문에 太陰이라고 한 것이다. 陰氣가 안에서 모이고, 陽氣는 밖으로 통한다. 11월에는 陰氣가 안에서 모이는데, 비록 一陽이 처음 生하더라도, 氣가 미미하면 밖으로 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에 병들어 脹이 되는 것이다.

[按] 12辟卦에서 太陰은 地雷復卦로 아래에 하나의 陽爻가 있고, 그 위에 다섯 개의 陰爻가 있다.[10]

[原文] 所謂上走心為噫者, 曰陰氣盛而上走陽, 陽者陽明絡屬心, 故曰上走心為噫.

[解釋] 이른바 위로 心으로 달려 噫(트림)를 한다는 것은, 陰氣가 성하여 올라가 陽 부위로 달려가는데, 陽 부위는 陽明의 絡脈이 心에 絡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로 心으로 달려 噫(트림)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十一月有五陰爻, 故陰氣盛也. 太陰在內, 所以為下也: 陽明居外, 所以為上也. 陽明之正, 上入腹裏, 屬胃散之脾, 上通于心, 故陽明絡屬心者也. 寒氣先客胃中, 復有厥氣從胃上散, 其厥氣復出胃之中上口, 胃以連心, 故曰上走心為噫也.

[解釋] 11월에는 五陰爻가 있다. 그러므로 陰氣가 盛하다. 太陰은 안에 있어 아래가 되며, 陽明은 밖에 있어 위가 된다. 陽明의 經別은 위로 올라가 배 속으로 들어가서 胃에 屬하고 脾에서 흩어지며, 위로 心에 통한다. 그러므로 陽明의 絡은 心에 屬하는 것이다. 寒氣가 먼저 胃 속을 침입하고 다시 그 逆하는 氣가 胃로부터 올라가 흩어지는데, 그 逆하는 氣는 거듭 胃의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올라가고, 胃가 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心으로 달려 噫(트림)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陰氣盛, 『素問』無氣字, 袁刻脫盛字. 而上走陽陽者『素問』作而上走于陽明.)

[解釋] '陰氣盛'은 『素問』에는 '氣'자가 없고, 袁刻本에는 '盛'자가 없다. '而上走陽陽者'는 『素問』에는 '而上走陽明'으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食則嘔者, 曰物盛滿而上溢, 故嘔.

[解釋] 이른바 먹으면 구역질 한다는 것은 음식물이 가득 차서 위로 넘치기 때문에 구역질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胃中食滿, 陽氣消之. 今十一月, 一陽力弱, 未能熟消, 故胃滿而溢, 謂之歐. 此嘔, 吐也.

[解釋] 胃 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 陽氣가 이것

10)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 84.

을 소화하는데, 지금 11월이라 하나의 陽으로는 힘이 약하여 능히 익혀서 소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胃가 가득 차서 넘치게 된다. 이를 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嘔는 吐의 의미이다.

[蕭延平校] 平按 : 注食滿袁刻誤作氣滿. 一陽, 一字袁刻脫.

[解釋] 注에서 '食滿'은 袁刻本에서는 '氣滿'으로 잘못 되어 있다. 一陽의 一자가 袁刻本에는 빠져 있다.

[原文] 所謂得后與氣則快然而衰者, 曰十一月陰氣下衰, 而陽氣且出, 故曰得后與氣則快然而衰.

[解釋] 이른바 대변을 보거나 방귀를 뀌면 시원해지면서 병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11월에 陰氣가 아래에서 쇠해지고 陽氣는 또 나오기 때문에 대변을 보거나 방귀를 뀌면 시원해지면서 병세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陽氣未大, 故腹滿為脹. 陰氣向下, 一陽引之, 故得后便及泄氣, 快然腹減.

[解釋] 陽氣가 아직 크지 않다. 그러므로 배가 가득 차서 脹이 된다. 陰氣는 아래로 향하고, 一陽이 이를 이끌기 때문에 대변을 보거나 방귀를 뀌면 시원하게 배가 줄어드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而衰, 兩而字『素問』均作如. 十一月『素問』作十二月.

[解釋] '而衰'의 두 '而'자는 『素問』에 모두 '如'자로 되어 있다. 11월은 『素問』에 12월로 되어 있다.

[原文] 少陰所謂腰痛者, 曰少陰者腎也, 七月萬物陽氣背傷, 故腰痛.

[解釋] 少陰病에 이른바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少陰은 장부로는 腎이고, 월별배속은 7월인데, 7월은 만물의 陽氣가 등에서 손상되므로, 허리가 아프다고 한 것이다.

[楊上善注] 七月秋氣始至, 故曰少陰. 十一月少陰之氣大, 三月少陰已厥, 故少陰至腎七月之時, 三陰已起, 萬物之陽已衰, 太陽行腰, 太陽既衰, 腰痛也.

[解釋] 7월에는 가을의 氣가 처음 이르므로 少陰이라고 한 것이다. 11월에는 少陰의 氣가 커지고 다음해 3월에는 少陰이 이미 없어진다. 그러므로 少陰이 이르는 腎의 달, 즉 7월의 때에는 三陰이 이미 일어나고, 만물의 陽이 이미 쇠퇴해진다. 太陽은 허리를 운행하는데, 太陽이 이미 쇠퇴해졌으므로, 허리가 아프다.

[蕭延平校] 平按 : 七月『素問』作十月, 背傷作皆傷. 注故少陰至腎, 袁刻脫陰字.

[解釋] '七月'은 『素問』에서는 '十月'로 되어 있고, '背傷'은 '皆傷'으로 되어 있다. 注에서 '故少陰至腎'은 袁刻本에서는 '陰'자가 빠져 있다.

[按]

十二辟卦에서는 少陰이 天地否卦로 밑에 3개의 陰爻가 있고, 그 위에 3개의 陽爻가 있다.[11]

[原文] 所謂上氣咳, 上氣喘者, 曰陰氣在下, 陽氣在上, 諸氣浮無所依從, 故嘔咳, 上氣喘也.

[解釋] 이른바 氣가 올라가 기침하고(上氣咳)와 氣가 올라가 숨 가쁘다(上氣喘)는 것은 陰氣가 아래에 있고, 陽氣가 위에 있어, 모든 氣가 떠 있게 되어, 의지하여 따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질(嘔), 기침(咳), 氣가 위로 올라가 숨가쁨(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楊上善注] 此腎咳也. 陰陽二氣不和, 各在上下, 故諸陽氣浮無所依, 好為嘔咳, 上氣喘也.

[解釋] 이는 腎에 원인이 있는 기침(腎咳)이다. 陰陽 두 氣가 어울리지 못하여 각각 陽은 위에 陰은 아래에 있게 되므로, 모든 陽氣가 떠 있어서 의지할 바가 없게 되어, 구역질(嘔) 기침(咳) 氣가 올라가 숨가쁨(喘)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素問』上氣咳作嘔咳, 諸氣浮作諸陽氣浮.

[解釋] 『素問』에는 '上氣咳'가 '嘔咳'로 되어 있고, '諸氣浮'가 '陽氣浮'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邑邑不能久立, 坐起則目眩眩[12]無所見者, 萬物陰陽不定, 未有主也,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 陰陽內奪, 故曰目

11)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 84.

12) 底本에는 眩자의 오른쪽 亡자 위에 풀 초가 있는데, 컴퓨터에 이 글자가 없어 임시로 眩자를 사용하였다.

眩眩無所見也.

[解釋] 이른바 힘이 없어(邑邑: 微弱貌[13])오래 서 있지 못하며, 앉았다 일어나면 눈이 캄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만물의 陰陽이 안정되지 않아 주관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가을의 氣가 처음 이르러, 약간의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만물을 죽이려 하여, 陰陽이 안에서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눈이 캄캄하여 보이는 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七月陰陽氣均未有定主, 秋氣始至, 陽氣初奪, 故邑然悵望, 不能久立. 又陰陽內各不足, 故從坐起, 目眩無所見也. 有本作露, 但白露即霜之微也. 十月已降甚霜, 即知有本作十月者, 非也.

[解釋] 7월에 陰陽의 氣가 모두 정해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을의 氣가 처음 이르러 陽氣가 뺏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축 늘어져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陰陽이 안에서 각각 부족해지므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눈이 캄캄해져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 어떤 책에는 露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白露는 즉 서리가 미미한 것이다. 10월에는 이미 심한 서리가 내리므로, 어떤 책에 10월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蕭延平校] 平按 : 邑邑『素問』作色色, 新校正云 : 色色二字疑誤. 坐上『素問』有久字, 眩眩作眴眴. 注悵望, 悵字袁刻誤作脹.

[解釋] '邑邑'은 『素問』에는 '色色'으로 되어 있다. 新校正에서는 "'色色' 두 글자는 아마 잘못된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坐' 위에 『素問』에는 '久'자가 있고, '眩眩'은 '眴眴'으로 되어 있다. 注에서 '悵望'의 '悵'는 袁刻本에는 '脹'으로 잘못 되어 있다.

[原文] 所謂少氣喜怒者, 陽氣熱不治, 陽氣不得出, 肝氣當治而未得也, 故喜怒者, 名曰前厥.

[解釋]이른바 陽氣가 적어져서 잘 화를 낸다는(少氣 喜怒) 것은 陽氣의 熱이 다스려지지 않아, 陽氣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로, 肝氣가 마땅히 다스려야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잘 화를 내는데, 이러한 병의 이름을 前厥이라고 한다.

[楊上善注] 少陰氣用也, 則陽氣熱而不用, 故不得出也. 肝以主怒, 少陰用時, 肝氣未得有用, 故喜怒也. 喜怒之病, 名曰前厥者也.

[解釋] 少陰의 氣가 운용됨에 있어서 陽氣의 熱이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간은 怒를 주관하는데 少陰이 用事할 때에 肝氣가 운용되지 못하므로, 잘 怒하게 된다. 잘 怒하는 병은 병의 이름을 前厥이라고 한다.

[蕭延平校] 平按 : 陽氣熱不治, 『素問』無熱字, 作陽氣不治二句. 故喜怒者作善怒善怒者. 前厥作煎厥. 注肝以主怒, 肝字袁刻誤作所.

[解釋] '陽氣熱不治'는 『素問』에는 '熱'자가 없고, '陽氣不治'가 두 구절 반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故喜怒'는 '善怒善怒者'로 되어 있다. '前厥 '은 '煎厥'로 되어 있다. 注에서 '肝以主怒'의 '肝'자는 袁刻本에는 '所'자로 잘못 되어 있다.

[按]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煩勞則張, 精絶, 辟積於夏, 使人煎厥."이라 하였고, 新校正에서 "按「脈解」云: 所謂少氣善怒者, 陽氣不治. 陽氣不治, 則陽氣不得出,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 名曰煎厥."이라 하였다. 즉 少陰은 陰陽 세력이 서로 비등하여 陽氣가 잘 발설되어야 하는데, 陰 세력이 강하면 陽氣가 배출되지 못하고 속에 쌓이고, 이렇게 陽氣가 쌓인 것을 적절히 밖으로 푸는 것은 肝의 역할인데, 간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怒의 감정을 유발하여 煎厥이 발생하게 된다.

[原文] 所謂恐如人將捕之者, 秋氣萬物未得畢去, 陰氣少, 陽氣入, 陰陽相薄, 故恐.

이른바 사람들이 장차 자기를 잡으러 오는 듯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을에 氣가 만물에서 다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로, 밖의 陰氣는 적고 陽氣는 몸 내부로 들어와서 陰과 陽이 서로 충돌하므로, 두려워한다.

[楊上善注] 七月萬物少衰, 未至枯落, 故未得畢去也. 始涼未寒, 故陰氣少也. 其時猶熱, 故陽氣入也. 然則二氣相薄不足, 進退莫定, 故有恐也.

13)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30. "田晉蕃曰: 『太素』作邑邑是, 『楚辭遠逝』:風邑邑而蔽之. 注: 微弱貌, 義與不能久立久坐合."

[解釋] 7월에 만물이 약간 쇠퇴해지고, 아직 말라 낙엽이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다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서늘해지기 시작하고 아직 춥지는 않기 때문에 陰氣가 적다. 그 때에 아직 날씨는 더운데, 陰氣의 작용으로 陽氣가 몸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즉 두 氣가 서로 충돌하여 부족해져서 進退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陽氣入, 原抄脫入字, 謹依『素問』及本注補入.

[解釋] '陽氣入'에서 원래 원본을 옮겨 쓸 때에는 '入'자가 없었는데, 삼가 『素問』 및 楊上善의 注에 의거하여 補入하였다.

[原文] 所謂惡聞食臭者, 胃無氣, 故惡聞食臭也.

[解釋] 이른바 음식 냄새 맡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胃에 氣가 없으므로, 음식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七月陽衰, 胃無多氣, 故惡聞食氣也.

[解釋] 7월에는 陽이 쇠해져서 胃에 많은 氣가 없다. 그러므로 음식 냄새를 맡기가 싫은 것이다.

[原文] 所謂面黑地色(1)者, 秋氣內奪, 故變于色也.

[校注]

(1) 地色: 『素問』에는 '地色' 앞에 '如'자가 더 있다.[14] 孫鼎宜는 "地當作灺, 形誤. 灺, 卽炭也. 『廣雅·釋詁四』: 炭, 灺也."라고 하였다.[15]

[解釋] 이른바 얼굴색이 땅의 색과 같이 검다는 것은 가을에 氣가 안에서 뺏겨 안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楊上善注] 七月三陽已衰, 三陰已起, 然陽去陰來不已, 則陰強陽弱, 故奪色而變.

[解釋] 7월에는 三陽이 이미 쇠퇴하고 三陰이 이미 일어난다. 그러나 陽이 없어지면서 陰이 오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으니, 陰은 强해지면서 陽은 약해진다. 그러므로 얼굴이 奪色되어 변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注而變袁刻誤作而起.

[解釋] 注에 '而變'은 袁刻本에 '而起'로 잘못 되어 있다.

[原文] 所謂咳則有血者, 陽脈傷也, 陽氣未盛于上, 腹滿則咳, 故血見于鼻也.

[解釋] 이른바 기침하면 피가 나온다는 것은 陽脈이 손상된 것이다. 陽氣가 아직 위에서 성하지 않은데, 脈[16]이 가득 차면 기침한다. 그러므로 피가 코에 보이는 것이다.

[楊上善注] 七月金主肺也, 肺主咳也, 不咳則已, 咳則傷陽, 陽傷血脈, 故腹滿, 見血于鼻中也.

[解釋] 7월에는 金이 폐를 주관한다. 폐는 기침을 주관한다. 기침하지 않으면 낫지만, 기침하면 陽을 손상한다. 손상된 陽은 血脈을 손상한다. 그러므로 脈이 가득 차서 피가 코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腹滿則咳『素問』作而脈滿滿則咳六字.

[解釋] '腹滿則咳'는 『素問』에는 '而脈滿滿則咳' 6글자로 되어 있다.

[原文] 厥陰所謂頹疝, 婦人少腹腫者, 曰厥陰者辰也, 三月陽中之陰也, 邪在中, 故曰頹疝少腹腫.

[解釋] 厥陰病에서 이른바 頹疝과 부인의 少腹腫은 厥陰이 12地支에서는 辰에, 계절로는 3월에 해당되어, 陽 가운데의 陰으로, 邪氣가 속에 있으므로, 頹疝 少腹腫이라고 한 것이다.

[楊上善注] 三月陰氣將盡, 故曰厥陰. 三月為陽, 厥陰脈在中, 故曰陽中之陰. 邪客厥陰之脈, 遂為頹疝. 頹, 謂丈夫少腹寒氣成, 積陰器之中而痛也. 疝, 謂寒積氣上, 入少腹而痛也. 病在少腹痛, 不得大小便, 病名曰疝也.

[解釋] 3월에는 陰氣가 장차 다 없어지려 한다. 그러므로 厥陰이라고 한 것이다. 3월은 陽으로 厥陰脈이 속에 있기 때문에 陽 속의 陰이라고 한 것이다. 邪氣가 厥陰의 脈에 침입하여 마침내 頹疝이 생긴다. 頹는 남자가 아랫배에 寒氣가 형성되어 음기의 속에 쌓여 아픈 것을 말한다. 疝은 寒이 쌓인 氣가 올라가 아랫배로 들어가 아픈 것을 말한다. 병에 아랫배가

14)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29.

15)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30.

16) '腹'은 '脈'자의 잘못으로 본다. 아래 楊上善 注에서도 '腹'은 '脈'의 오자로 본다.

아프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것의 病名을 疝이라고 한다.

[蕭延平校] 平按 : 頹『素問』作癩. 注上入小腹, 袁刻脫上字.

[解釋] '頹'는 『素問』에는 '癩'로 되어 있다. 注의 '上入小[17]腹'은 袁刻本에는 '上'자가 빠져 있다.

[按]

十二辟卦에서는 厥陰이 澤天夬卦로 밑에 5개의 陽爻가 있고, 그 위에 하나의 陰爻가 있다.[18]

[原文] 所謂腰脊痛不可以俯仰者, 三月一振榮華, 而萬物一俯而不仰也.

[解釋] 이른바 腰脊痛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3월에 한차례 영화로움이 떨쳐서 만물이 한 번 구부리고 펴지를 못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振, 動也. 三月三陽合動而為春, 萬物榮華, 低枝垂葉, 俯而不仰, 故邪因客厥陰, 腰脊痛, 俯不仰也.

[解釋] 振은 움직이는 것이다. 3월에 三陽이 함께 움직여 봄이 되면, 만물은 영화롭게 되어, 가지를 내리고 잎을 늘어뜨려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邪氣가 그로 인하여 厥陰에 침입하여 허리와 척추가 아프고, 구부렸다 펴지를 못하는 것이다.

[原文] 所謂釘癃[19]膚脹者, 曰陰一盛而脹, 陰脹不通, 故曰頹癃.

[解釋] 이른바 못 머리 모양의 부스럼(釘), 소변불통(癃), 피부가 붓는 것(膚脹) 등은 陰이 한 번 성하여 붓는 것(脹)으로, 陰氣가 팽창되어 통하지 않기 때문에 頹癃이라고 하는 것이다.

[楊上善注] 毒熱客于厥陰, 故為釘腫. 邪客于陰器, 遂為癃病, 小便難也. 客于皮膚中, 因為膚脹. 三月為陽, 陰氣一在而盛, 故陰器腫脹. 陰器腫脹不通, 故為頹癃也.

[解釋] 毒熱이 厥陰에 침입하므로, 못 머리 모양의 종기가 생기는 것이다. 邪氣가 陰器에 침입하여 결국 癃病이 생기는데, 癃病은 소변보기 어려운 것이다. 피부 속에 침입하면, 그 때문에 피부가 붓게(膚脹) 된다. 3월은 陽인데, 陰氣가 약간 남아 있다가 성해지기 때문에 陰器에 종기가 생기고 팽창되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頹癃이 된다.

[蕭延平校] 平按 : 『素問』釘作癩, 膚上有疝字, 一盛作亦盛, 而脹陰脹不通作而脈脹不通, 故曰癩疝作故曰癩癃疝也.

[解釋] 『素問』에는 '釘'이 '癩'로 되어 있고, '膚' 위에 '疝'자가 더 있 있으며, '一盛'은 '亦盛'으로 되어 있다. '而脹, 陰脹不通'은 '而脈脹不通'으로 되어 있고, '故曰癩癃'은 '故曰癩疝也'로 되어 있다.

[原文] 所謂甚則嗌乾熱中者, 陰陽相薄而熱則乾, 故曰嗌干也.

[解釋] 이른바 심하면 嗌乾熱中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陰陽이 서로 충돌하여 열이 나면 마르게 되므로 목구멍이 마르는(嗌乾) 것이다.

[楊上善注] 甚, 謂厥陰邪氣盛也. 厥陰之脈, 挾胃屬肝絡膽, 上入頏顙, 故陰陽相薄, 熱中而嗌乾也.

[解釋] 심하다는 것은 厥陰에 邪氣가 성하다는 것을 말한다. 厥陰의 맥은 胃를 끼고 肝에 屬하였다가 膽에 絡하며, 올라가 頏顙(목구멍과 콧구멍이 만나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陰陽이 서로 충돌하면 속에서 열이 나면서 목구멍이 마르는 것이다.

[蕭延平校] 平按 : 『素問』無則乾二字.

[解釋] 『素問』에는 '則乾' 두 글자가 없다.

Ⅳ. 고 찰

1. 三陰三陽의 의미와 病機

1) 三陰三陽의 의미

太陽을 1월에 비유하여 그 의미를 강한 陰 속에서 陽의 세력이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少陽은 9월, 즉 늦가을에 해당하여, 陰이 상당히 성해져

17) '小'는 '少'의 오자이다.

18)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 85.

19) '癃'자는 저본에 '疒' 속의 '隆'에서 왼쪽 변인 '阝'이 없는 글자인데, 컴퓨터 자판에 없어 '癃'자로 썼다. 의미는 같다. 아래도 같다.

서 陽이 거의 없어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陽明은 5월의 가장 陽이 성할 때에 一陰이 생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太陰은 11월로, 陰이 가장 성한 상태에서 一陽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少陰은 7월로, 陽氣가 아직 성한 가운데에 陰氣도 어느 정도(三陰)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厥陰은 3월로, 陽氣가 강해지고 陰氣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三陰三陽의 月別配屬은 6개월 차이를 두고 表裏가 되는 짝이 서로 위치하고 있다. 즉 太陽(1월)-少陰(7월), 厥陰(3월)-少陽(9월), 陽明(5월)-太陰(11월)로 서로 짝이 되어 있는데, 이는 陰陽 세력의 消長관계로 보았을 때 表裏로 묶일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太陽이 陽 세력이 강한 陰 세력 속에서 어느 정도 결집되어 있는 것이라면, 少陰도 강한 陽 세력 속에서 陰 세력이 어느 정도 결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陰陽 세력의 공통점이 있다. 厥陰과 少陽에 있어서도, 厥陰은 陰氣가 거의 없어지려는 상태이고, 少陽은 陽氣가 거의 없어지려는 상태이므로, 陰陽 세력의 공통점이 있다. 太陰과 陽明에 있어서도, 太陰이 가장 강한 陰 세력이라 한다면, 陽明도 陽氣가 밖으로 활짝 드러난 것이므로, 陰陽 세력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太陽 少陰은 陰陽 세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太陰 陽明은 陰陽 세력의 전성기라 할 수 있으며, 厥陰 少陽은 陰陽 세력의 교체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락 流注에 있어서도, 太陽 少陰이 陰陽 세력의 뒷바라지 역할을 하여 몸의 뒤를 흐르는 것으로, 그리고 太陰 陽明이 陰陽 세력의 전성기 역할을 하여 몸의 앞을 흐르는 것으로, 그리고 厥陰 少陽이 陰陽 세력의 교체 역할을 하여 몸의 옆을 흐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20]

그리고 三陰三陽의 本이라 할 수 있는 六氣에 있어서도, 太陽-少陰은 寒과 君火(熱)로 서로 반대가 되며, 陽明-太陰은 燥와 濕으로 서로 반대가 되며, 厥陰-少陽은 風(疏通)과 相火(不通)로 서로 반대가 된다.[21]

『內經』에는 이 밖에도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내용이 여럿 나온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經脈篇』에 나오는 經脈流注순서는 手太陰肺經 → 手陽明大腸經 → 足陽明胃經 → 足太陰脾經 → 手少陰心經 → 手太陽小腸經 → 足太陽膀胱經 → 足少陰腎經 → 手厥陰心包經 → 手少陽三焦經 → 足少陽膽經 → 足厥陰肝經으로[22], 이러한 經脈流注 순서를 表裏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經脈流注의 큰 흐름은 太陰陽明經→ 少陰太陽經→ 厥陰少陽經으로 되어 있다. 12經脈이 表裏經絡의 순서로 太陰陽明經부터 흐르는 것은 후천적으로 水穀의 精微와 呼吸의 大氣가 胸中에서 만나 宗氣가 된 다음, 이로부터 經絡의 脈氣가 생성되어 흐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太陰陽明經을 흐른 뒤 少陰太陽經으로 흐르는 것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脈氣가 陰陽세력의 기본바탕인 少陰太陽으로 들어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영양함을 의미한다. 少陰太陽經을 흐른 뒤에 厥陰少陽經을 흐르는 것은 앞의 太陰陽明經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뒤의 少陰太陽經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少陰太陽經이 太陰陽明經을 도와 줄 때 厥陰少陽經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뒤의 少陰太陽經은 寒熱의 經絡이고 앞의 太陰陽明經은 燥濕의 經絡으로 寒熱로 燥濕을 조절할 때 바람구멍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화로와 솥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는데, 화로는 少陰太陽經으로, 솥 안의 밥은 太陰陽明經으로, 불조절을 하는 공기구멍은 厥陰少陽經으로 각각 비유할 수 있다. 밥이 되지도 질지도(燥濕) 않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공기구멍에서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厥陰少陽經이 少陰太陽經의 寒熱을 잘 조절할 때에만 太陰陽明經의 燥濕이 알맞게 될 것이다. 후천적으로 인체에 흡수된 水穀精微와 呼吸之氣는 太陰陽明經의 알맞게 조절된 燥濕에 의하여 익혀져서 少陰太陽經의 寒熱의 經絡으로 가게 되어 다시 솥을 지피는 땔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2經脈의 流注순서는 三陰三陽의 表裏關係를 중심으로 이

20)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 三陽 학설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10권. p. 459.

21) 이용범. 關蓋楠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 221.

2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221-253.

해할 수 있다."[23]

『靈樞·陰陽繫日月』과 『靈樞·經筋』에는 비록 手足과 左右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월-少陽, 2월-太陽, 3월-厥陰, 4월-厥陰, 5월-太陽, 6월-少陽, 7월-少陰, 8월-太陰, 9월-厥陰, 10월-厥陰, 11월-太陰, 12월-少陰으로 되어 있다.[24] 이를 關闔樞와 연결시켜 보면, "樞→ 關→ 闔→ 闔→ 關→ 樞→ 樞→ 關→ 闔→ 闔→ 關→ 樞의 순으로 구성되어 결국 樞→ 關→ 闔→ 闔→ 關→ 樞의 순환이 陽經과 陰經에서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꼴이다. 그러므로 『靈樞·陰陽繫日月篇』과 『靈樞·經筋』의 三陰三陽 순서는 經絡의 關闔樞 운행순서라 할 수 있다. 關闔樞는 氣의 출입 과정을 문에 비유한 것으로"[25] 三陰은 안쪽 문이고, 三陽은 바깥쪽 문이다. 문의 사용을 살펴보면 평소에 지도리에 기름을 칠해 놓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에 빗장을 열고, 문짝을 통하여 출입이 이루어진다. 문짝을 통하여 출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지도리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樞→ 關→ 闔 → 闔→ 關→ 樞의 순서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반년에는 陽經을 통하여 陽氣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후반년에는 陰經을 통하여 陰氣의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靈樞·經筋』과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6]

運氣의 主氣와 客氣에도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主氣의 순서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로 되어 있어 木火土金水의 오행순서로 되어 있다. 客氣의 순서는 그 해의 甲子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 해의 地支가 세 번째 氣인 司天之氣가 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一陰(厥陰)→ 二陰(少陰)→ 三陰(太陰)→ 一陽(少陽)→ 二陽(陽明)→ 三陽(太陽)의 순으로 用事한다. 이와 같이 客氣는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 순서에 의하여 그 배속순서가 정해지는데, 이는 客氣가 天氣로서 순수한 氣이기 때문에 그 배속순서도 단순한 힘의 크기로 消長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客氣의 배속순서의 원칙은 司天之氣를 정할 때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면 子午年에 少陰君火가 司天之氣가 되는 것을 三陰三陽의 배속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地支의 陰陽消長관계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라 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寅月이 一月이므로 寅月부터 12地支를 1/4로 나누어 寅卯辰은 陽生이 되고, 巳午未는 陰長이 되며, 申酉戌은 陽殺이 되며, 亥子丑은 陰藏이 된다. 이를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대로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여보면, 陽生에서는 寅은 一陽인 少陽, 卯는 二陽인 陽明, 辰은 三陽인 太陽이 되며, 陰長에서는 巳는 一陰인 厥陰, 午는 二陰인 少陰, 未는 三陰인 太陰이 되고, 陽殺에서는 申은 一陽인 少陽, 酉는 二陽인 陽明, 戌은 三陽인 太陽이 되며, 陰藏에서는 亥는 一陰인 厥陰, 子는 二陰인 少陰, 丑은 三陰인 太陰으로 배속된다. 그러므로 子午에는 少陰君火, 丑未에는 太陰濕土, 寅申에는 少陽相火, 卯酉에는 陽明燥金, 辰戌에는 太陽寒水, 巳亥에는 厥陰風木이 각각 배속된다. 이와 같이 客氣에서는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 순서가 配屬순서가 됨을 알 수 있다."[27]

2) 病機

太陽病에서 腫 腰脽痛 偏虛爲跛 등은 커져야 할 陽 세력이 부족하고, 陰 세력이 아직 강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强上(項强) 耳鳴 耳聾 狂癲疾 등은 陽 세력이 과도히 성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喑은 陽 세력이 성하다가 갑자기 쇠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太陽病에서는 陽氣가 부족한 것과 過亢한 것, 모두 병을 일으킬 수 있다.

少陽病에서 心脇痛은 陰氣가 너무 성하여 그 手足少陽經脈 流注에 해당하는 心脅이 아픈 것으로 보고 있으며, 不可反側도 陰氣가 성하여 만물을 저장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치로 설명하고 있다. 甚則躍은 陰氣가 성한 상태가 심하면 陽이 내부로 일찍 들

23) 이용범. 三陰 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06. 19(2). p. 50.
24)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2. (上冊) pp. 300-322.
25) 이용범. 三陰 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06. 19(2). p. 51.
26) 이용범. 三陰 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06. 19(2). pp. 50-51.
27) 이용범. 三陰 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06. 19(2). pp. 47-48.

어가 내부에서 세력을 키워 반발하여 오히려 용감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病證은 모두 陰氣가 너무 성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少陽病에서는 陰氣가 성하여 병을 일으키는데, 너무 陰氣가 성하면 陽氣가 아직 세력이 현격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므로 陽氣의 반발로도 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病機설명 방식에서 心脇痛을 手足少陽經脈의 流注와 연결시키고 있다.

陽明病에서 洒洒振寒은 막 생겨난 陰의 세력이 성한 것이고, 脛腫而股不收도 陰 세력이 성하지만 허리 아래에 그 기세가 머무르는 것은 허리 위로는 陽 세력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며, 上喘為水와 胸痛少氣는 一陰이 胸腹으로 올라와 水邪가 臟腑 사이에 침입한 것이다. 甚則厥, 惡人與火, 聞木音惕然而驚은 陰氣가 점점 성해져서 陽氣와 대등한 세력이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며, 志欲獨閉戶牖而處는 陰氣는 더욱 성해지고 陽氣는 쇠퇴한 것이며, 病重至則欲乘高而歌, 棄衣而走는 陰氣는 적고 陽氣가 過亢한 것이며, 客孫脈則頭痛鼻鼽腹腫은 陽明病의 기세가 위로 몰려 太陰病으로 전변된 것이다. 그리므로 陽明病에서는 주로 陰氣가 성한 것으로 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으며, 病重至則欲乘高而歌, 棄衣而走만 陽氣가 過亢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客孫脈則頭痛鼻鼽腹腫은 表裏가 되는 太陰病 전변되어 생긴 것으로 특이하다 할 수 있다.

太陰에서의 一陽은 강한 陰이 속으로 잠장하려는 것을 외부로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脹은 一陽이 약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上走心為噫는 太陰과 陽明이 表裏로 연결되며, 陽明經別이 心과 연결되는데, 성한 陰氣(寒氣)가 이러한 연결된 經絡의 흐름을 따라 太陰에서 心으로 올라가 생긴다. 食則嘔는 一陽의 힘이 부족하여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得后與氣則快然而衰는 一陽이 약하여 脹이 된 것이 一陽이 회복됨에 따라 방귀나 대변이 나가 소통되어 병세와 완화되는 것이다. 즉 脹 噫 食則嘔 등은 一陽이 쇠약하여 나타나며, 得后與氣則快然而衰는 一陽이 회복되면서 나타난다. 噫의 病機 설명방식에서 經脈流注와 表裏가 함께 동원된 점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少陰病에서 腰痛은 陰氣가 세력을 형성하여 陽이 많이 쇠약해지면, 表裏관계에 있는 太陽에 영향을 주어 太陽이 쇠약해지며, 太陽은 허리를 운행하므로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上氣咳, 上氣喘 (嘔) 등은 陽氣가 위에 떠서 생기는 증상이다. 邑邑不能久立, 坐起則目眩眩無所見은 少陰이 陰陽 세력이 서로 비슷하여 주관하는 것이 없는데, 가을 氣에 陽이 세력을 너무 잃어서 생긴다. 少氣 喜怒는 陰氣가 강해지고 陽氣가 적어져서 陽氣의 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에 쌓이며, 또 肝이 陽氣 배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恐如人將捕之는 약한 陰氣의 작용으로 陽氣가 수렴되지만 少陰의 陰陽 세력이 대등하여, 주된 세력이 없어 안정되지 못하여 발생한다. 惡聞食臭는 陽氣가 쇠하여져 음식물을 소화시킬 힘(胃氣)이 약해져서 생긴다. 面黑(如)地色은 陰氣가 강해지고 陽氣가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咳則有血는 7월은 가을로 金이 주관하여 폐의 병증인 기침이 발생하는데, 기침하면 陽이 손상되고, 혈맥도 손상되어 발생한다. 즉 腰痛 邑邑不能久立 坐起則目眩眩無所見 少氣喜怒 惡聞食臭 面黑(如)地色 咳則有血 등은 모두 陽氣가 허약해져 발생하고, 上氣 咳 喘 등은 陽氣가 위에 떠서 발생하며, 恐如人將捕之는 陰의 수렴작용이 약하여 陰陽 세력이 불안정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통을 설명하면서 經脈流注와 表裏를 이용한 것, 그리고 少氣喜怒(煎厥)을 설명하면서 肝의 疏泄작용과 함께 언급한 점은 특이하다 하겠다.

厥陰病에서 頹疝, 婦人少腹腫은 寒氣가 厥陰脈에 침입하여 陰器와 아랫배에 쌓여 생긴다. 腰脊痛不可以俯仰은 3월에 陽氣가 성해져서 만물이 영화롭게 되어 가지가 늘어져 펴지를 못하듯이 邪氣가 厥陰脈에 침입하여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는 못하여 생긴다. 이는 체내 陽氣가 사지 말단으로 몰리면서 허리에 지탱할 힘이 약해져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釘癰膚脹에서 釘은 못 머리 모양의 종기인데, 지독한 熱이 厥陰脈에 침입하여 생기며, 癰 膚脹은 3월에 약간 남아 세력이 약해야 할 陰氣가 盛해져서 팽창되어 생긴다. 甚則嗌乾熱中은 陰陽 세력이 서로 충돌하여 속에서 熱이 나면서 그 邪氣가 厥陰脈의 流注를 따라 頏顙으로 올라와 생긴다. 즉 厥陰病에서 陰器와 관련된

병은 주로 陰氣(寒氣)가 厥陰脈을 침입하여 생기며, 腰脊痛은 陽氣가 팔다리로 몰리면서 생기며, 釘은 毒熱이 厥陰脈에 침입하여 생기며, 嗌乾은 陽氣의 상승이 지나쳐 熱을 내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嗌乾의 病機 설명에서 經脈流注가 이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黃帝內經太素·經脈病解』에서 病機를 설명하는 방식은 주로 三陰三陽이 갖는 陰陽消長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며, 經脈流注와 表裏關系도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靈樞·經脈』의 是動所生病과의 비교

1) 太陽病

太陽病에서 언급하고 있는 病證은 腫, 腰脽痛, 偏虛爲跛, 强上, 耳鳴, 狂, 癲疾, 耳聾, 喑 등 모두 9개이다. 『靈樞·經脈』의 手太陽小腸經에서는 "是動則病嗌痛, 頷腫,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是主液所生病者, 耳聾目黃, 頰腫, 頸頷肩臑肘臂外後廉痛."이라 하였고, 足太陽膀胱經에서는 "是動則病 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腘如結, 踹如裂, 是爲踝厥. 是主筋所生病者, 痔, 瘧, 狂, 癲疾, 頭顚項痛, 目黃, 淚出, 鼽衄, 項背腰尻腘踹脚皆痛, 小指不用."이라 하였으니, 이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腫(頷腫, 頰腫) 腰脽通(腰似折, 項背腰尻腘踹脚皆痛), 耳聾, 狂, 癲疾 등이며, 偏虛爲跛는 髀不可以曲, 腘如結, 踹如裂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9개 중에서 6개가 공통적인 병증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病證은 주로 足經脈과 관련이 있다.

2) 少陽病

少陽病에 나오는 病證은 心脇痛, 不可反側, 甚則躍 등 모두 3개 이다. 『靈樞·經脈』에의 手少陽三焦經 항목에서는 "是動則病耳聾渾渾焞焞, 嗌腫, 喉痺.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眥痛, 頰痛, 耳後肩臑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이라 하였으며, 足少陽膽經 항목에서는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脅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頷痛, 目銳眥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 汗出振寒, 瘧, 胸脅肋髀膝外至脛絶骨外踝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이라 하였으니, 이 중 공통적인 것은 心脇痛, 不可反側(轉側) 등 2개 이다. 모두 足少陽膽經에 있다.

3) 陽明病

陽明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증은 洒洒振寒 脛腫 股不收 上喘為水 胸痛 少氣 甚則厥 惡人與火 聞木音惕然而驚 志欲獨閉戶牖而處 病重至則欲乘高而歌 棄衣而走 客孫脈則頭痛 鼻鼽 腹腫 등 모두 15개이다. 『靈樞·經脈』의 手陽明大腸經 항목에서 "是動則病齒痛, 頸腫.是主津液所生病者, 目黃, 口乾, 鼽衄,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氣有餘, 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慄不復."이라 하였으며, 足陽明胃經 항목에서 "是動則病洒洒振寒, 善呻, 數欠, 顏黑,病至則惡人與火, 聞木聲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是謂鬲厥. 是主血所生病者, 狂瘧溫淫, 汗出, 鼽衄, 口喎, 脣胗, 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臏腫痛, 循膺乳氣街股伏兎骭外廉足跗上皆痛, 中指不用. 氣盛則身以前皆熱, 其有餘于胃, 則消穀善饑, 溺色黃; 氣不足, 則身以前皆寒慄.胃中寒, 則脹滿."이라 하였으니, 이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洒洒振寒, 惡人與火, 聞木聲則惕然而驚,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鼻鼽(鼽衄), 腹腫(大腹水腫) 등 모두 8개 이다. 이 증상들은 주로 足經脈과 관련이 있다.

4) 太陰病

太陰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증은 脹 上走心為噫食則嘔 得后與氣則快然而衰 등 모두 4개 이다. 『靈樞·經脈』의 手太陰肺經 항목에서 "是動則病肺脹滿, 膨膨而喘欬,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瞀, 此爲臂厥. 是主肺所生病者, 欬, 上氣, 喘渴, 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 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이라 하였고, 足太陰脾經 항목에서는 "是動則病舌本强, 食則嘔, 胃脘痛, 腹脹, 善噫,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身體皆重. 是主脾所生病者,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溏瘕泄, 水閉, 黃疸, 不能

臥, 强立,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이라 하였으니, 공통적인 것은 脹(肺脹滿, 腹脹), 噫(善噫), 食則嘔, 得后與氣則快然而衰 등으로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4개가 모두 『靈樞·經脈』의 足太陰脾經의 病證에 나온다.

5) 少陰病

少陰病에서 언급하고 있는 증후는 腰痛 上氣 咳喘 邑邑不能久立 坐起則目眩眩無所見 少氣 喜怒 恐如人將捕之 惡聞食臭 面黑(如)地色 咳則有血 등 모두 12개 이다. 『靈樞·經脈』의 手少陰心經 항목에서는 "是動則病嗌乾, 心痛, 渴而欲飮, 是爲臂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脅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이라 하였고, 足少陰腎經 항목에서는 "是動則病饑不欲食, 面如漆柴, 欬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眩眩如無所見, 心如懸若饑狀. 氣不足則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是爲骨厥. 是主腎所生病者,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嗌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澼, 脊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이라 하였다. 이 중 공통적인 것은 上氣 喘(喝喝而喘) 坐起則目眩眩無所見(坐而欲起, 目眩眩如無所見) 恐如人將捕之(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惡聞食臭(饑不欲食) 面黑(如)地色(面如漆柴) 咳則有血(欬唾則有血) 등 7개 이다. 주로 공통적인 증상은 주로 足經絡에 몰려 있다.

6) 厥陰病

厥陰病에서 언급되는 病證은 頹疝, 婦人少腹腫 腰脊痛不可以俯仰 癃癈疝 膚脹 甚則嗌乾 熱中 등 7개 이다. 『靈樞·經脈』에서는 手厥陰心包經 항목에서 "是動則病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甚則胸脅支滿, 心中憺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是主脈所生病者, 煩心, 心痛, 掌中熱."이라 하였고, 足厥陰肝經 항목에서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 丈夫癪疝, 婦人少腹腫; 甚則嗌乾, 面塵, 脫色. 是肝所生病者, 胸滿, 嘔逆, 飧泄, 狐疝, 遺溺, 閉癃."이라 하였다. 공통적인 증상은 丈夫頹疝(癪疝) 婦人少腹腫 腰脊痛不可以俯仰 癃 嗌乾 熱中(煩心) 등 6개 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足經脈과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총 50개의 증상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33개가 『靈樞·經脈』의 是動所生病과 서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로 足經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 증상과 經脈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여기에서는 『太素·經脈病解』의 주요 증상이 소속 經脈 이외의 다른 經脈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腰痛

요통은 太陽病(腰脽痛), 少陰病(腰痛), 厥陰病(腰脊痛不可以俯仰)에 나온다. 『靈樞·經脈』에서는 足厥陰肝經(腰脊痛不可以俯仰)에 『太素·經脈』과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외에도 足太陽膀胱經是動病(腰似折)에 나온다.

2) 耳鳴

耳鳴은 太陽病에 나오고, 『靈樞·經脈』에는 나오지 않는다.

3) 耳聾

耳聾은 太陽病에 나오고,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陽小腸經 所生病과 手少陽三焦經 是動病에 나온다.

4) 狂, 癲疾

狂, 癲疾은 太陽病에 나오고, 『靈樞·經脈』에서도 足太陽膀胱經 所生病에 나오며, 足陽明胃經 所生病에 狂虐이 나온다.

5) 惡寒

惡寒은 陽明病(洒洒振寒)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足陽明胃經 是動病(洒洒振寒)에 나올 뿐만 아니라, 手陽明大腸經의 虛證과 胃氣不足(寒慄), 手太陰肺經 氣盛有餘證(風寒) 氣虛證(寒)에, 그리고 足少

陽膽經 所生病(振寒)이 나온다.

6) 上氣

上氣는 少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陰肺經 所生病(上氣)과 足少陰腎經(上氣)에 나온다.

7)喘

喘은 陽明病과 少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陰肺經 是動病(喘) 所生病(喘)에 그리고 足少陰腎經 是動病(喝喝而喘)에나온다.

8) 咳

咳는 少陰病(咳, 咳則有血)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陰肺經 是動病(欬) 所生病(欬)과 足少陰腎經 是動病(欬唾則有血)에 나온다.

9) 嘔

嘔는 太陰病(食則嘔)에 나오며, 少陰病의 楊上善注에서도 나오는데(上氣 嘔), 『靈樞·經脈』에서는 足太陰脾經 是動病(食則嘔)과 足厥陰肝經 所生病(嘔逆)에 나온다.

10) 頭痛

頭痛은 陽明病(頭痛)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足太陽膀胱經 是動病(衝頭痛) 所生病(頭顖項痛), 足少陽膽經 所生病(頭痛)에 나온다.

11) 鼻鼽

鼻鼽는 陽明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陽明大腸經 所生病(鼽衄), 足陽明胃經 所生病(鼽衄), 足太陽膀胱經 所生病(鼽衄)에 나온다.

12) 脹

脹은 太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陰肺經 是動病(肺脹滿), 足陽明胃經 是動病(腹脹), 足太陰脾經 是動病(腹脹), 足陽明胃經 中寒證(脹滿)에 나온다.

13) 少氣

少氣는 陽明病과 少陰病에도 나온다. 『靈樞·經脈』에는 手太陰肺經 氣虛證(少氣 不足以息)에 나온다.

14) 面黑(如)地色

面黑(如)地色은 少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足陽明胃經 是動病(顔黑), 足少陰腎經 是動病(面如漆柴)에 나온다.

15) 嗌乾

嗌乾은 厥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少陰心經 是動病(嗌乾), 足厥陰肝經 是動病(嗌乾), 足少陰腎經 所生病(嗌乾及痛)에 나온다.

16) 熱中(煩心)

熱中은 厥陰病에 나오는데, 『靈樞·經脈』에서는 手太陰肺經 所生病(煩心), 足太陰脾經 所生病(煩心), 足少陰腎經 所生病(煩心), 手厥陰心包經 所生病(煩心)에 나온다.

V. 결 론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三陰三陽에 대한 月別配屬의 의미를 『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 고찰하고, 증상 및 病機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太素·經脈病解』의 三陰三陽에 대한 月別配屬은 表裏관계를 갖게 되는 공통점에 대하여 陰陽消長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內經』의 다른 篇에 나오는 時間配屬과 함께 三陰三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2. 病機는 주로 陰陽消長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經脈流注와 表裏관계를 아울러 이용하고 있다.
3. 『太素·經脈病解』에 나오는 증상은 총 50개 인데, 『靈樞·經脈』의 是動所生病에 나오는 증상과 공통적인 것은 33개로 66% 정도를 차지한다.

4. 楊上善은 주석에서 『太素·經脈病解』의 三陰三陽에 대하여 手足經脈을 모두 언급하고 있으나, 그 病證은 주로 『靈樞·經脈』의 足經脈에 나온다.

참고문헌

〈논문〉

1. 이용범. 三陰三陽의 시간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2. 이용범. 十二支化氣와 四時陰陽消長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2).
3. 이용범. 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4. 정창현.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5.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10권.

<단행본>

1.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3. 楊上善 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91.
4.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周一謨, 萧佐桃 主編.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